

明·清代 祁州藥市の 成長과 ‘藥王廟’

이민호·안상우*

한국한의학연구원 문헌연구센터

The Growth of the *Qizhou* Medicinal Herb Market during the *Ming* and *Qing* Dynasties and Medicine King Temple

Min-Ho Lee, Sang-Woo Ahn*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Center for Medical History & Literature

ABSTRACT

Objectives : The rapid progress seen in the Chinese medical and pharmaceutical industries since the mid *Ming* Dynasty, and the resulting surge in demand for medicinal herbs led to the emergence of dedicated medicinal herb markets. A representative example was the medicinal herb market of *Qizhou* (today's Anguo) in *Hebei* Province. This paper examines various factors that contributed to the transformation and growth of *Qizhou* into and as a major medicinal herb market of China.

Methods : Along with the examination of geographical factors, this study attempts to link the development of *Qizhou* as a center for medicinal herbs trade with legends related to the Medicine Lord Temple (*Yao Wang Miao*), a local shrine dedicated to the mythical Medicine Kings.

Results : The main argument of this study is that although the emergence of *Qizhou* as China's largest marketplace for medicinal herbs was significantly helped by its proximity to *Beijing*, a huge source of demand, as well as its convenient location easily accessible from all parts of the country, and the large herbal production from surrounding areas, the single most important contributing factor was the body of legends attributing to this city a magical healing energy.

Conclusions : The example of *Qizhou* may also suggest that in pre modern eras, legends related to supernatural healing power, associated to a city or town, were as important contributing factors to its emergence and growth as a dedicated medicinal herb market as its location or ease of access.

Key words : *Ming* and *Qing* Dynasties, *Qizhou* Medicinal Herb Market, Medicine King Temple, Medicine Kings, Local Medical Union

서론

명 중기 이후 민간에서는 官藥制度의 쇠퇴와 더불어 상품경제의 진전, 인쇄·출판업의 성장을 발판삼아 의약업 분야도 크게 발달하였다¹⁾.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질병에 대응하고, 수명 연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상업이 활성화되고 외지로의 인구 이동

이 심화되면서 徽商의 경우처럼 상인과 의약인이 함께 진출하여 협업하는 사례도 보이고 있다²⁾. 약제업이 중요한 경제활동이었다는 사실은 약상이 명말 각종 소설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3,4)}.

명대에는 이처럼 의약업의 발전을 반영하는 요소들이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專業藥市の 성장이다. 명 중기 이래 활성화된 대표적인 藥市는

* 교신저자 : 안상우,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483 한국한의학연구원 문헌연구센터
· Tel : 042-868-9442 · E-mail : answer@kiom.re.kr
· 접수 : 2009년 11월 9일 · 수정 : 2009년 12월 11일 · 채택 : 2009년 12월 21일

河北省 祁州(현 河北 安國市)였다. 교통의 요지에 위치한祁州는 중국에서 유명한 약재 집산지로 ‘10大藥市’ 가운데 하나로 ‘天下第一藥市⁵⁾’, 혹은 ‘四大藥都之首⁶⁾’로 칭해지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명·청 이래 중국 약재 시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렇다면 祁州가 명·청대부터 專業藥市로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본고는 기주 지역에서 약시가 형성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을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환경적 측면에서 기주의 입지 조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약재시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주변 지역에서 약재가 많이 생산되어야 하고 거대한 소비시장이 존재해야 하며, 교통도 편리해야 한다. 특히 장거리 수송을 위해서는 육로 교통도 중요하지만 수로 교통의 발달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조건들은 祁州 이외의 다른 약시들에서도 공통으로 보이는 사항이다.

하지만 祁州가 남방의 江西省 樟樹鎮과 더불어 명·청 시대 중국 최대의 약시가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상의 요소 외에도 이 지역에 가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신비한 기운이 자리하고 있다는 전설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樟樹鎮이 주변에 갈현·갈흥이 연단술을 연마했다는 유적지와 그에 관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으며, 바로 그 점이 약재 시장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祁州에는 ‘약왕묘’와 그에 관한 전설이 약재 시장의 형성과 성장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주약시의 성장 요인을 분석하는 데 먼저 지리 환경적 요인과 더불어 문화적 요인 즉 약왕묘 관련 설화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 지역이 전국적인 규모의 약재 교역 시장이었음을 반증하는 증거라 할 수 있는 각 지역 약방의 결성과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본 론

1. 祁州의 地理環境과 藥市

화북 평원 중부의 南北驛道상에 위치한 祁州는 교통의 요충지에 자리하고 있어 역사적으로 兵變⁷⁾이 많은 지역이었으며, 왕조 교체와 더불어 지역의 명칭도 자주 변화하였다(Table 1).

祁州에는 명대 이전에도 묘회를 중심으로 초보적인 형태의 정기 약시가 형성되어 있었다. 묘회의 역사는 당대부터 시작되었으나 송·원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다지 활성화되지 않다가 小商品 생산이 전국적으로 보편화한 명 중기 이래 급속하게 발달하였다고 생각된다⁸⁾. 일반적으로 묘시에서는 다양한 상품이 교역되었지만 점차 증대되는 약재의 수요를 만족시켜줄 수 없었기 때문에 약상들은 약왕묘를 세우고 전업약시를 열기 시작했다⁹⁾. 약시는 中唐시기부터 시작되었으나, 보다 큰 규모를 갖추기

Table 1. Chronology of Qizhou¹⁰⁾

時代	州地	屬	轄
春秋	鮮虞境		
戰國	中山境	晉→魏→趙	
秦	中山境	鉅鹿	
漢	安國	冀州	解瀆
東漢	安國	中山	
後漢·魏	安國	魏	
晉	安國	博陵	
十六國	安國	慕容燕→苻秦→後燕	
北魏-北周	安國	博陵	深澤
隋	義豐	博陵	
唐	義豐	蠡州	
五代 (梁·唐·晉)	義豐	祁州	
五代 (漢·周)	蒲陰	祁州	
北宋	祁州	河北西路 中山府	蒲陰·鼓州· 鎮州·無極· 沈澤
南宋(金)	祁州-蒲陰 郡軍	河北西路-眞定路	蒲陰·鼓城· 深澤
元	祁州	保定	蒲陰·深澤· 束鹿·安平· 武強·饒陽
明	祁州	保定府	博野·深澤· 束鹿
清	祁州	保定府	
民國	安國		

시작한 것은 명 중기부터이다. 명 중기에는 藥材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업약시가 성장하였는데, 약재라는 상품의 특수성 때문에 생산과 유통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에 시장이 형성되었다. 廟會를 중심으로 한 초보적인 형태의 약재 시장은 명대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전국적인 규모의 약재교류시장이 성립한 것은 명 중기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곳이 바로 기주였다.

그렇다면 특별히 기주 지역에서 약시가 형성되고 발전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 몇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겠다. 첫째, 기주가 명대 중엽 이후 약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수도인 북경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명 중기 이후 북경은 전국 최대의 상업도시로 성장하였다. 황실을 포함한 지배층은 물론이고 명조 정부의 徙民政策으로 북경으로의 인구 유입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건강을 위한 약재 수요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명·청대 북경에서 藥材業이 발달했던 것은 嘉靖年間(1522~1566)에 동업조합이라 할 수 있는 ‘藥行商會¹¹⁾’가 설립되었고, 浙東의 慈溪지역 출신 藥材商人들이 중심이 되어 ‘鄞縣會館¹²⁾’을 설립하여 운영한 것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북경에서의 약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음은 휘주 출신 徐春甫가 중심이 되어 중국 최초의 민간의학 학술단체인 ‘一體堂宅仁醫會’를 창립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¹³⁾. 그밖에 청대 북경에서 성립한 ‘同仁堂’은 북경 지역에 그만큼 약재 수요가 많았음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도 북

경에서 소비되는 중약재의 많은 부분이 安國(곧 祁州) 藥市에서 거래되고 있다. 북경으로부터의 약재 수요의 증대는 기주가 명 중기 이후 급격히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잘 발달된 교통의 요지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점도 祁州가 전업 약시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永樂年間に 수도를 북경으로 천도한 이후 경제 선진지역인 강남과 수도인 북경, 그리고 이들 지역을 연결하는 대운하 연변에 상업 도시들이 출현하여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었다¹⁴⁾. 明代 祁州는 대운하에 직접 연해 있지는 않았지만 수로를 통해 연결이 되고 수도인 북경에서도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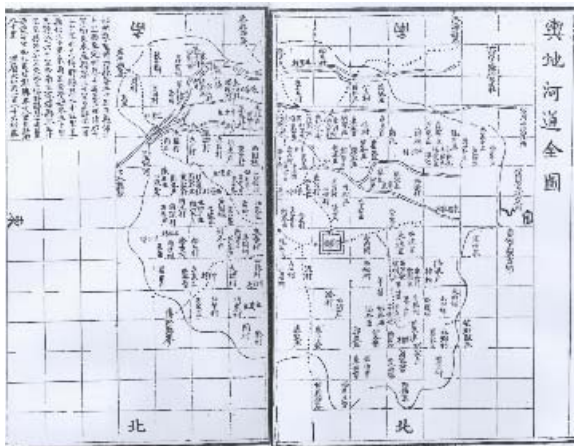


Fig. 1. Complete Map of Land and Waterways (Yudi Hedao Quan Tu) in Qizhou

祁州는 화북 평원 중부의 南北驛道상에 위치하여 북경·천진 등 대도시에서 가까울 뿐 아니라 수로 교통도 편리하여 접근성이 용이하다. 도시를 동서로 가로질러 唐·沙·滋河의 세 하천이 흐르고 있으며, 이들은 滹龍河로 이어지는데, 계속된 대청하를 통해 대운하와도 연결되고 이어서 海河를 이용하면 천진까지 도달된다. 또한 기주 남쪽의 深澤縣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滹沱河를 이용할 경우 역시 대운하와 직결된다. 이처럼 잘 발달된 수로¹⁶⁾는 기주가 전국적인 규모의 약시로 성장하는 데 크게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점은 기주 약시에서 활동한 상인들이 단순히 기주 지역 출신자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 각지의 상인들이 이곳에 와서 기주 13방 혹은 17방으로 불리는 각 지역 약방을 결성하여 활동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Fig. 1).

셋째, 기주 지역에서는 수 십 종의 약재가 생산되었는데, 이 또한 약시의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祁州志》에는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약류로 枸杞·牽牛·紫蘇·菟絲子·瞿麥·麥門冬·桑白皮·益母·茵陳·稀莩·地骨皮·小茴香·薏苡仁·薄荷·蒺藜·車前子·酸棗仁·杏仁·菖蒲·地黃·槐角子·蒼耳·百合·艾·赤芍藥·白芍藥·金銀花를 들고 있다¹⁷⁾. 또 약류로 분류되지 않는지

만 약재로 사용될 수 있는 재료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다.

넷째, 기주 지역에서는 명대부터 의학을 중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주공서 옆에 문묘, 유학, 음양학과 더불어 의학을 두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Fig. 2). 의학은 正德 7年(1512)에 知州 徐愛¹⁸⁾가 음양학과 함께 이곳으로 옮겨 설치한 것이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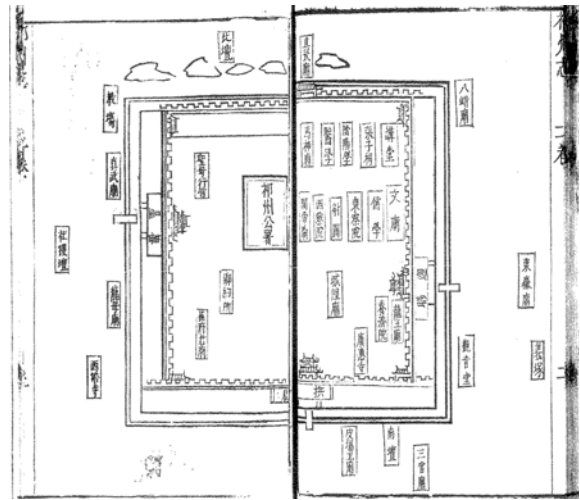


Fig. 2. Qizhou Government Office and the Shrine of Pi Tong (Pi Chang Wang Miao)²⁰⁾

2. ‘藥王廟’ 說話와 祁州藥市の 形成·發展

明·清代 祁州가 전국적인 규모의 약시로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앞서 거론한 환경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이 지역이 병자를 치료하는 신령한 기운 곧 ‘약왕’이 존재한다는 전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藥王’은 醫神으로 민간에서 영향력이 적지 않았으며, 많은 지역에 ‘약왕묘’가 세워졌다. 하지만 중국의 약왕은 시기와 지역에 따라 모습을 달리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설화나 전설도 다양해서 심지어 하나의 약왕묘에 모셔진 약왕에 대한 내력에 대해서도 이설이 있다²¹⁾.

약왕묘에 모신 약왕은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고 시대에 따라 변화하기도 하였지만, 청대 후기에 이르러서는 최종적으로 16명이 되었는데, 이를 표로 나타내면 Table 2와 같다.

명대 의약경제의 발전에 따라 약시가 증가하고, 규모 또한 점차 확대되면서 행회를 조직하고, 숭배할 우상 및 활동 장소를 만들어 상인들 상호간의 응집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에 祁州·樟樹·百泉 등 약시가 성행한 지역을 중심으로 역사상의 醫藥始祖와 의학 발전에 영향력이 컸던 인물들을 숭배하기 위해 廟를 세우고 그들을 藥王으로 삼았다. 예를 들면 祁州 인근의 任丘縣 鄭州는 扁鵲의 고향으로 그곳의 扁鵲廟는 적어도 송대에는 이미 묘가 건립되어 있었고, 더욱이 향불이 끊이지 않아 明代에 이미 ‘藥王廟’로 칭해졌다²³⁾. 하지만 강희년간 몇 번의 큰

Table 2. Medicine Lords/Kings in Chinese History

姓名	異名·字·號	生沒年代	出身地	主要著書·活動
伏羲氏		傳說時代	未詳	鍼灸療法 創始
神農氏		上同	未詳	藥草 實驗
黃帝	姓 公孫, 名 軒轅	上同	未詳	醫藥學 創立
岐伯		上同	未詳	醫藥學 創立
長桑君		戰國初期	未詳	扁鵲 師
扁鵲	姓 秦, 名 越人	B.C.5~4世紀	河北 鄭州	戰國時期 名醫
張仲景	名 機, 字 仲景	約150~219	河南 涅陽	《傷寒雜病論》, 臨床醫學·炮制·藥劑學 基礎 確立
華佗	字 元化	141~208	安徽 亳州	東漢時期 醫學家, 外科手術
皇甫謐	字 士安	214~282	甘肅 靈臺	魏晉時期 醫學家, 《鍼灸甲乙經》
王叔和		未詳	山東 金鄉	西晉時期 醫學家, 《脈經》
葛洪	字 稚川, 號 抱朴子	281~341	江蘇 句容	煉丹術·救急法, 《肘後備急方》
雷公		未詳	未詳	《雷公炮炙論》, 300餘 藥種 炮制方法
陶弘景	字 通明, 號 華陽陶隱居	456~536	江蘇 江寧東南	南北朝時期 藥物學家, 《本草經集注》
孫思邈		581~682	陝西 耀縣	《備急千金要方》, 《千金翼方》
韋慈藏		644~741	陝西 西安	唐玄宗時期 藥王 稱號
李時珍	字 東壁, 號 瀕湖山人	1518~1593	湖北 蕪州	《本草綱目》

화재가 있는 후 관부에서 鄭州에서의 묘회 개최를 금지하였고, 주변의 기주 약시가 번성함에 따라 이곳에서의약재 교역은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

祁州의 약왕묘는 東漢의 開國功臣인 祁彤(?~30)을 모신 곳으로 약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면 참배해야 할 '神迹'으로 여기는 곳이다²⁴⁾. 祁彤의 字는 偉君이고, 信都(지금의 河北 衡水縣) 사람이다. 아버지 吉은 遼西太守를 지냈다. 비동은 처음에는 王莽의 和成卒正이었다가, 광무제가 화북으로 진출하여 下曲陽에 이르자 祁彤이 성을 들어 바치므로 太守로 삼았다²⁵⁾. 이후 王郎이 起兵하였을 때 공을 세웠으며, 太常, 少府 등을 거쳐 左曹侍中을 지냈다²⁶⁾. 비동은 무예에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醫理에도 정통하였는데, 그가 죽자 安國 南關에 장사지냈다고 한다²⁷⁾.

그런데 중요한 의약인물이 아닌 비동이 약왕묘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송대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전설과 관련이 있다. 즉 宋 秦王 趙德芳이 중병에 걸렸을 때 비동의 영혼이 나타나 병을 치료하였다고 한다. 이에 1101년 북송 휘종이 비동을 '靈貺侯'에 봉했고, 이어서 南宋 咸淳 6年(1270) '明靈昭惠顯祐王'으로 봉해 이때부터 약왕으로 칭해지기 시작했다. 기주의 약왕묘는 북송 휘종과 남송 도종 시기에 황제의 봉호를 받았는데, 이 점은 다른 지방의 약왕묘와 구별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²⁸⁾. 그리고 이 점은 명대 기주가 약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 된다. 남관 비동의 묘지는 명대에 이르러 약왕묘로 확대 조성된다. 약왕의 영혼이 송 진왕의 병을 치유하였다는 전설이 사람들 사이에 유행하면서 이곳이 '神迹'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그에 관한 《祁州志》의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장왕묘는 州治 남쪽에 있다. 전설에 의하면 기주 토신묘는 남쪽 성문 바깥 좌측에 있는데, 송대부터 지금까지 질병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꿈에 醫顯靈이 나타나 약이나 침뜸을 주어 그것으로 치료하면 병이 치

유되었다고 한다. 선조(송대) 진왕이 병에 걸려 여러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다가 한 의사가 나타나 약 몇 환을 주어 이를 복용하였더니 바로 완쾌되었다. 성명을 묻자 기주 남문 사람이라 답하였다. 즉시 사자를 그 지역으로 파견하여 물어 처음으로 신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로부터 사망에서 사람들이 모여 들어 분향하였다. 宋 建中靖國元年(1101)에 靈貺侯에 봉하였고, 후에 咸淳 6年(1270)에 明靈昭惠顯祐王을 加封하였다. 임안(항주)에도 사당을 세우고 국가에 재앙이 있을 때는 반드시 사자를 파견하여 기도하였다²⁹⁾.

병에 걸린 사람들이 신령한 기운이 존재한다는 이곳에와 신령에게 기도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이들을 대상으로 약재를 팔기 위한 약재상들이 몰려들면서 약시가 형성되었다. 결국 기주지역에서 약시가 형성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 지역에 질병을 치료하는 신령한 기운이 존재한다는 전설과 관계가 있었던 것이다. 이후 이곳 약시가 성행하면서 그에 따라 약왕묘도 점차



Fig. 3. Medicine Lord (Yao Wang) Pi Tong

규모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이곳의 약왕묘는 북송 건중정국 원년 건립된 이래 명 가정년간에 重修되었다. 면적은 3,200㎡에 달하였는데, 전면에 牌樓·山門이 있고, 문 앞에는 돌 사자 한 쌍이 있으며, 27m 높이의 旗杆 두 根이 정립해 있고, 山門前의 牌坊 위에는 원래 ‘封加南宋, 顯靈河北’이라는 제하의 편액이 걸려 있었다고 한다. 門 안쪽에는 馬殿, 鐘·鼓樓, 藥王墓亭, 大殿 및 後殿 등이 있고, 廟 안에는 碑碣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 대부분이 藥方 혹은 藥材 知識에 관한 내용이 새겨져 있다. 大殿의 정 중앙에는 藥王 形이 있고, 南北殿에는 扁鵲, 華佗, 張仲景, 孫思邈, 孫林, 徐文伯, 皇甫謐, 張子和, 劉河間, 張景岳 등 10명의 명의를 모셨다(Fig. 4)³⁰⁾.

또한 약왕묘 내에는 원래 石碑 수십 개와 牌扁 수백 개가 있었으나 문화대혁명으로 사묘 안에 남은 碑와 牌扁이 거의 없어졌다. 다행히 藥王廟文管所와 縣檔案局에 명·청·민국 시기의 碑文 탁본 10여 첩과 牌扁銘文 100여 개가 남아 있었다. 현존하는 가장 이른 시기인 成化 22年(1486) ‘重修皮場祠記’ 碑銘 중에 송대 진왕과 관련하여 앞의 기주지와 비슷한 내용의 글이 실려 있으며, 萬曆 26年(1594) ‘重修明靈昭惠顯祐王祠記’ 중에 신임 태수 張應徵이 左右僉事에게 피장왕묘의 유래와 역사에 대해 묻자 역시 비슷한 대답을 하고 있다³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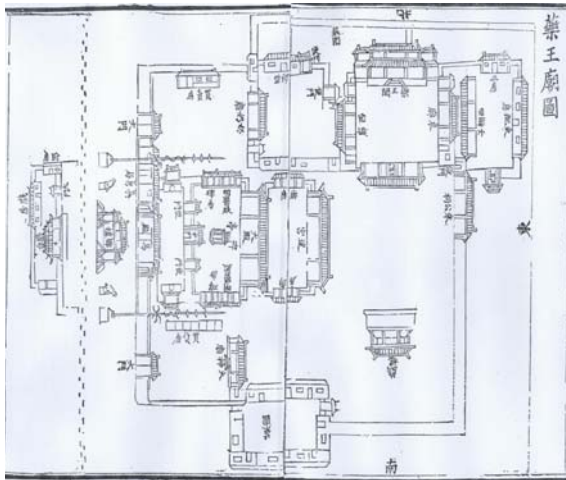


Fig. 4. View of the Medicine King Temple in Qizhou³²⁾

명대 각지에 설치되었던 피장묘는 약시의 기능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명초에는 태조 주원장이 황제에 오른 뒤 각지의 피장묘에서 탐관오리에 대한 숙청을 단행하였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각한 것은 약왕이 아니라 피비린내나는 흑형이었다. 주원장은 60냥 이상의 뇌물을 담은 관리들을 참수하고, 가죽을 벗기도록 했는데, 이를 각 부·주·현 각 아문 左面의 토지묘에서 이를 행하였으므로 사람들이 피장묘라 하였다.

물론 명대의 피장이 剝皮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안국의 藥王廟碑銘에 보이는 피장왕은 ‘州의 靈神’으로 토지에 대한 숭배를 나타내며, 명초의 박피장과는 다

르다. 피장신앙은 명대에 시작된 것은 아니며 송대에 이미 성행한 것으로 보인다. 문헌 기재에 의하면 송대의 수도였던 개봉·항주 및 소주·상주 등지에 피장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³³⁾.

역사적으로 피장왕에서 약왕으로의 명칭 변경이 이루어진 것은 청초로 보인다. 그것은 명말 《崇禎祁州志》에 여전히 피장왕묘라는 명칭이 보이고 있고, 康熙年間的 《祁州志》에도 약왕묘라는 명칭 대신 피장왕묘라 하고 있다. 그러다가 乾隆 21年(1756)의 《祁州志》부터 약왕이라는 명칭이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왜 갑작스럽게 약왕묘로 개칭하였을까? 그것은 안국 인근의 鄭州 약왕묘의 쇠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³⁴⁾.

3. 明·清代 祁州藥市の 成長과 藥幫의 結成

祁州에서는 1년에 두 차례 藥王廟會가 개최되었는데, 봄에는 청명에서 단오절까지, 겨울에는 음력 12월 8일부터 정월까지 지속되었다³⁵⁾. 송·원 시대에 이곳 藥市는 祁州 南關의 藥王廟에서 4월과 10월 개최되었는데 기간은 봄에는 20일, 가을에는 30일 동안 지속되었으며, 가까이 산서와 섬서, 멀리 사천과 광둥·운남·귀주 등에서 약상들이 몰려들었다고 한다³⁶⁾. 장강 이북의 약재 공급은 주로 이곳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³⁷⁾. 永樂 2年(1404)에는 藥王廟를 세우고 비교적 큰 廟市가 열렸다. 이후 萬曆 26年(1598), 36年(1608), 38年(1610), 하북·산둥·하남·산서·안휘·북건 등 8성의 약상들이 출자하여 연속 3차례에 걸쳐 약왕묘를 수리하고 아울러 매년 청명절에 약재를 교역하였다³⁸⁾.

명·청대 지역 상인들은 북경과 같은 대도시에서 회관을 설립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외에 전문적인 약재 시장에서도 동향 사람을 중심으로 회관을 설치하거나 藥幫을 만들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重慶 廣東幫의 廣東會館, 浙江幫의 浙江會館, 懷幫의 河南公所, 樟幫의 萬壽宮, 漢口幫의 禹王宮, 陝西幫의 三元廟 등이 있다. 幫首(幫의 우두머리)는 추천을 통해 선출하거나 교대로 담임하기도 하였지만 대개 저명한 업주가 담당하였다. 이러한 약방의 정식명칭이 가장 먼저 출현한 것은 기주약시에서였다. 건륭년간 북경·통주의 약상이 京通行을 조직하였고, 산둥약상이 山東行을 조직하여 교역에 참가하였다. 道光 9年(1829) 각지 약상들이 자금을 모아 약왕묘 앞에 두 개의 鐵杆을 주조하였는데 아래쪽에 자금을 출연한 關東幫, 陝西幫, 山西幫, 山東幫, 黃芪幫, 京通衛幫, 古北口幫의 명단을 새겼다. 뒤에 祁州 藥商은 西北口幫, 懷幫, 亳州幫, 寧波幫, 江西幫, 廣幫, 彰武幫이 증가하였다. 기주 본지의 황기방을 제외하면 모두 13방이다. 13방은 기주를 전국 고급 약재집산시장의 지위를 형성하게 하였다.

방의 형성은 同治 4年(1865) 기주약왕묘 내에 건립된 「河南彰德府武安縣合幫新立碑」 비문에 “객상들이 화물을 가지고 와서 판매하는데, 각 성별로 이루어졌으며,

Table 3. Major Local Medical Union during the Ming Qing Dynasties

名稱	地域	集散地	主要 取扱 品目
1 關東幫	遼寧, 吉林, 黑龍江	營口	人參, 黃芪, 虎骨, 木通, 膽草, 木賊, 防風, 五味子, 鹿茸 等 關外 藥材
2 古北口幫	古北口(北京 密雲 東北), 熱河(承德)	承德, 營口	黃芪, 防風, 知母, 柴胡, 肉蓯蓉, 甘草, 赤芍, 鹿茸
3 西北口幫	呼和浩特, 包頭, 張家口	包頭	甘草, 黃芪, 赤芍, 肉蓯蓉, 當歸, 大黃
4 京通衛幫	北京, 通州, 天津	北京, 祁州	北京 同仁堂 中成藥, 黃芪, 穿山甲, 紫硃砂, 寸입 鹿茸, 藏 紅花, 洋桂枝, 洋枳實, 洋枳
5 祁州幫	河北 祁州 一帶	祁州藥市	薏苡仁, 薄荷, 黃芪, 祁白芷, 板藍根, 草決明, 牛膝
6 山西幫	山西, 陝西一部	太谷	黃芪, 黨參, 甘草, 菖蒲, 連翹, 秦艽, 款冬花, 遠志, 羚羊角, 枸杞, 紫草, 西貝母, 肉蓯蓉, 小茴香
7 陝西幫	陝西, 甘肅, 寧夏	西安, 漢中	當歸, 枸杞, 羌活, 大黃, 羚羊角, 麝香, 鹿茸
8 山東幫	山東	濟南	全蝎, 阿膠, 銀花, 瓜蒌, 柏子仁, 曹州丹皮
9 懷幫	河南 懷慶, 沁陽	懷慶, 鄭州	懷山藥, 懷牛膝, 懷菊花, 懷地黃(4大懷藥), 麝香, 朱砂
10 彰武幫	河南 彰德(安陽), 武安	彰德	紅花, 瓜蒌, 香附, 白芷, 菖蒲, 黨參, 連翹, 麝香
11 禹州幫	河南 禹州	禹州	禹白附, 會全蝎, 密銀花
12 寧波幫	浙江, 江蘇	寧波, 上海	'浙八味'(浙貝母, 浙麥冬, 浙玄參, 浙玄胡, 浙棗皮, 杭白術, 杭白芍, 杭菊花), 梔子, 二紅皮
13 亳州幫	亳州, 安徽其他	亳州	亳菊, 亳芍, 瓜蒌, 白芥子
14 江西幫(樟幫)	江西(清江縣 一帶 藥商)	樟樹	枳實, 枳殼, 半夏
15 漢口幫	漢口, 湖北其他	漢口	茯苓, 豬苓, 桔梗, 蓮子, 龜板, 鱉甲, 蜈蚣
16 川幫	四川, 雲南, 貴州	成都, 重慶, 昆明, 大理, 貴陽, 遵義	川麥冬, 川黃蓮, 川貝母, 川枳殼, 川枳實, 川佛手, 川陳皮, 川大黃, 川丹參, 川芎, 附子, 虫草, 麝香, 天麻, 梔子, 杜仲, 厚朴, 黃柏, 三七, 吳茱萸, 朱砂, 雄黃
17 廣幫	廣東, 廣西	廣州, 香港	中成藥, 廣藿香, 石斛, 田七, 蛤蚧, 收入南藥

성마다 방을 만드니 13방이 되었다”고 하였으며, 아울러 關東幫, 陝西幫, 山西幫, 山東幫, 京通衛幫, 古北口幫, 西北口幫, 懷幫, 亳州幫, 寧波幫, 江西幫, 廣幫, 彰武幫 등 13방이 열거되어 있는데, 청말에는 더욱 증가하여 전국적으로 대략 17방이 있었다고 한다³⁰⁾. 명·청대에 크게 활동한 藥幫을 표로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결론

본고는 명·清代 祁州藥市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藥王廟’ 설화와 연계하여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명 중기는 상품 화폐 경제가 발전하면서 專業市鎮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경제 성장과 더불어 일반인의 건강에 대한 수요의 증대, 의학 관련 서적의 대량 출판 등 의학 기술의 발전을 매개로 약재업과 관련 산업이 성장할 수 있었다.

祁州가 專業市鎮으로 성장한 데에는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특징이 보인다. 그것은 교통 등 지리적인 요인보다 전설이라는 문화적 요인이 시장 형성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이다. 물론 기주 지역이 약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藥王廟’만 관계되는 것은 아니다. 주변에 北京이라는 거대한 소비시장이 존재해 있고, 水路를 통해 직접 大運河에 연결되는 등 교통이 편리하며, 藥材도 많이 생산되고 있다. 이들 요소 가운데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전국 규모의 약재 시장 형성은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흥미로운 점은 이 지역에서 약왕으로 모신 인물이 실제로는 의약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비동이라는 후한 시대의 개국공신이란 사실이다. 전통시대 중국에서는 약왕을 모신 사당이 기주 외에도 여러 도시에 있었는데, 이들 지역의 약왕은 대개 역사상의 의약인물이 중심이 되었던 것에 비해 기주 약왕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국가에서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봉호를 내려주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를 계기로 각지의 상인들이 기주로 몰려들었던 것이다.

기주 지역이 명·청대 상공업의 중심지역인 양자강 중·하류의 강남 지역에 위치하지 않았음에도 전업시진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주목의 대상이다. 이 점은 남방의 대표적인 약시인 장수진도 교통의 편리함에 더해 갈현·갈홍의 연단술 관련 설화와 관계되는 점을 상기한다면 약시의 경우 생산과 유통의 중심지보다는 전설이나 설화가 약시 형성의 중요한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이민호. 明 中期 民間 醫藥業의 成長과 ‘寒儒爲醫’. 중국사연구. 2008 ; 55.
2. 張玉才. 明清時期徽人在揚州的醫事活動及影響. 中國中醫基礎醫學雜誌. 2000 ; 6-9.
3. 吳金成. 『金瓶梅』를 통해 본 16C의 中國社會. 명청사연구. 2007 ; 27.

4. 藤井宏. 新安商人の研究(二). 東洋學報. 1953 ; 36(2) : 47.
5. 吳岩. 安國藥王文化與藥市. 光彩. 1996 ; 3 : 8.
6. 張瑞賢. 中國古代醫藥諸神(7)-皮場大王. 光明中醫雜誌. 1994 ; 1.
7. (清)宋蔭桐. 歷代兵事弟七. 安國縣新志稿(二)(民國年間補抄稿本). 成文出版社 : 401-32.
8. 山根幸夫. 明清華北定期市の研究. 汲古書院. 1995 : 79.
9. 唐廷猷. 中國藥業史. 中國醫藥科技出版社. 2003 : 5.
10. (清)宋蔭桐. 沿革弟二. 安國縣新志稿(一)(民國年間補抄稿本). 成文出版社.
11. 唐廷猷. 中國藥業史. 中國醫藥科技出版社. 2003 : 249.
12. 이민호. 명대 북경의 상업·상세와 환관. 중국학보. 2007 ; 56 : 263.
13. 林殷 지음. 문재곤 옮김. 한의학과 유교문화의 만남. 예문서원. 1999 : 306.
14. 조영현. 대운하와 휘주상인-明末·清初 淮·揚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15. (清)宋蔭桐. 輿圖弟一. 安國縣新志稿(一)(民國年間補抄稿本). 成文出版社.
16. (清)宋蔭桐. 河渠弟五. 安國縣新志稿(一)(民國年間補抄稿本). 成文出版社 : 141-92.
17. 郭應響. 輿地志-土產. (崇禎)祁州志 卷1.
18. 郭應響. 職官志-職員 및 人物志. (崇禎)祁州志 卷6 및 卷8.
19. 郭應響. 建置志-醫學. (崇禎)祁州志 卷2.
20. 郭應響. 建置志-城池. (崇禎)祁州志 卷2.
21. 鄭金生. 中國歷代藥王及藥王廟探源. 中華醫史雜誌. 1996 ; 26(2) : 65.
22. 鄭金生. 中國歷代藥王及藥王廟探源. 中華醫史雜誌. 1996 ; 26(2) : 67.
23. 張瑞賢. 安國藥王廟考. 江西中醫學院學報. 2005 ; 17(4) : 9.
24. 吳岩. 安國藥王文化與藥市. 光彩. 1996 ; 3 : 8.
25. 范曄. 列傳11-邴彤. 後漢書 卷21.
26. 范曄. 列傳11-邴彤. 後漢書 卷21.
27. 吳岩. 安國藥王文化與藥市. 光彩. 1996 ; 3 : 8.
28. 張瑞賢. 安國藥王廟考. 江西中醫學院學報. 2005 ; 17(4) : 5.
29. 郭應響. 祝典志-皮場王廟. (崇禎)祁州志 卷3.
30. 張瑞賢. 中國古代醫藥諸神(7)-皮場大王. 光明中醫雜誌. 1994 ; 1.
31. 張瑞賢. 安國藥王廟考. 江西中醫學院學報. 2005 ; 17(4) : 5.
32. (清)趙秉恒 等修. 劉學海等纂. 祁州地輿圖. 祁州續志(全)(光緒元年刊本). 成文出版社.
33. 張瑞賢. 安國藥王廟考. 江西中醫學院學報. 2005 ; 17(4) : 6.
34. 鄭金生. 中國歷代藥王及藥王廟探源. 中華醫史雜誌. 1996 ; 26(2) : 70.
35. 張瑞賢. 中國古代醫藥諸神(7)-皮場大王. 光明中醫雜誌. 1994 ; 1.
36. 加藤繁. 支那經濟史概說. 弘文堂. 1944 : 93.
37. 山根幸夫. 明清華北定期市の研究. 汲古書院. 1995 : 79.
38. 唐廷猷. 中國藥業史. 中國醫藥科技出版社. 2003 : 95-6.
39. 唐廷猷. 中國藥業史. 中國醫藥科技出版社. 2003 : 251-2.